



《최순덕 성령충만기》낸
소설가 이 . 기 . 호

비루먹고

염치없는

친구들에 대한 편애의

기록

《최순덕 성령충만기》는 이기호(32) 씨의 첫 창작집이다. 1999년에 <현대문학>으로 등단했으니 회사로 치면 입사한 지 5년 만에 명함을 새긴 셈이다. 이씨는 출판사에서 '이놈'과 첫 대면을 하고 기분이 묘했다. 안도감이 들기도 하고 아쉽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할지 길이 보이기도 하고... 몸에 있던 통증이 가슴으로 옮겨왔다. 참 못나고 흉한 놈인데 이제 내 곁을 떠나다니 슬프고 안쓰러웠다.

보도방에서 몸을 파는 여자와 업자業者(버니), 살아 있는 머리카락을 지닌 채 절에서 길러진 고아소녀(《머리카락 傳言》), 채권추심회사에 취직하려고 자기소개서를 쓰는 지하철 앵벌이(《옆에서 본 저 고백》), 생활에 찌든 무능한 가장 '아담'과 그를 전도하는 여자(《최순덕 성령충만기》) 등 《최순덕 성령충만기》에 실린 여덟 편은 이씨가 후기에도 밝히고 있듯 어떤 면에서 '치우침'이고 '편애'다. 서른세 살의 이씨는 "비루하고 염치없는 주인공들에게 더 마음이 쏠리고, 교양 없고 막돼먹은 친구들에게 더 많은 눈길이 간다. 복잡다단한 플롯보다 조금 더 단순한 쪽에, 사

변보다는 사건에, 근대보다는 전근대에" 그의 소설적 애정이 맞닿아 있다.

이씨는 우리의 소설이 조금 더 쉬워지고 낮아지고 평등해져야 한다고 '주장' 한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작가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소설에서 3인칭을 고집하는 것도 그때 문인데 1인칭은 결국 작가의 감정적 개입이 들어갈 여지가 많고, 그러다보면 작가는 자신이 알고 있는 것을 과시하려 하고 독자를 가르치려 듭니다. 예술가로서의 소설가를 지향한다면 이러한 선민의식부터 버려야 합니다."

한때 소설 속 주인공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리기도 했던 이씨는 문학적 교양을 쌓고 사회적으로 필요하다는 인격을 쌓으면 쌓을수록 자기 자신에 솔직하지 못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거칠다는 것은 그만큼 솔직하다는 것인데 소설 속 주인공들이야말로 자기욕망에 자유롭고 사회를 대하는 방식도 진실하다는 믿음이 자리 잡았다.

한번은 PC방에서 흥미로운 '문서'를 발견하기도 했다. 무심코 지우지 않은 자기소개서들이었다. 그 안에는 정말 다양한 인생들이 담겨 있었다. 문장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다. 앵벌이가 채권추심회사에 취직하기 위해 PC방에서 자기소개서를 쓰는 과정(〈옆에서 본 저 고백은〉)을 쓰기도 했지만 이씨는 이 평범한 사람들의 자기소개서도 소설이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랩(〈버니〉)이나 성경(〈최순덕 성령충만기〉), 피의자신문조서(〈햄릿 포에버〉) 등도 마찬가지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접하는 문서나 글들이 충분히 소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고 '무식한' 나도 했으니 너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다.

이씨가 마음 다잡고 소설이라는 것을 쓰기 시작한 것은 대학원에 들어가고 나서부터다.

"성장과정에서 문학적인 분위기는 전혀 없었습니다. 문예부도 아니었고, 책에 파묻혀 지낸 적도 없었어요. 고등학교 때까지 만나니것을 하고 다녔고 대학에 가서야 김승옥이라는 소설가의 이름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작가로서의 짝수가 있었다면 초등학교 6학년 때 어머니가 사다놓은 4권짜리 한국단편문학선을 1년 내내 읽었다는 것과 고등학교 2학년 때 처음 '택시운전사'가 주인공인 소설을 썼다는 것이다. 하지만 최인호와 조선작 등 당시로서는 최신작이 실린 한국단편문학선은 그에게 〈선데이 서울〉에 가까웠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쓴 소설 역시 소설가가 되고 싶어서였다기보다 수업시간에 칠판은 눈에 안 들어오고 탄 짓을 하긴 해야겠는데 마땅히 할 게 없어 쓴 것이었다.

이후에도 마찬가지였다. 당시 자신이 쓴 소설을 좋게 봐준 선생님의 영향으로, 선생님은 이씨의 작품을 교지에 실으려 했지만 교장선생님의 반대로 실릴 수 없었다. 추계예술대학교 문창과에 진학하기는 했지만 대학에 가서도 소설과는 그다지 인연이 없었다. 오히려 극회 활동에 열심이었고 졸업하고 나서도 연극을 하기 위해 극단을 기웃거렸다.

"잘 안됐어요. 그런데 명지대학교에서 처음 대학원생 모집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문예지를 통해 박범신 선생님의 〈흰소가 끄는 수레〉를 좋게 본 직후였습니다. 그래서 생각했죠. 이분 밑에서 좀더 배워보자구요."

그냥 더 배워보려고 간 대학원에서 이씨는 임자를 만났다. '박범신 교수'는 여자나 쫓아다니고 여러 일로 산만한 그를 용인 집필실에 가둬버렸다. 이곳에서 이씨는 선생님이 손수 해주는 밥을 먹고 커피를 마셨고 선생님과 함께 산책을 다녔다. 랩으로 이야기를 끌고 가는 〈버니〉로 등단한 것도 이때였다. 등단하기 전

소설보다 랩을 이해하기 위해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그에게 스승은 이렇게 말했다. "이게 너의 감수성이야."

이씨는 전형적인 1972년생이다. 91학번으로 재수나 삼수 없이 제때 입학했고 제때 군대를 다녀왔다. 80년대 작품보다는 못하지만 여전히 '촌스럽고' 90년대 작품보다는 덜하지만 '짜가지 없기'는 매한가지다. 이씨의 작품은 바로 그 충돌지점, 즉 사회참여적 목소리와 새로운 감수성 사이에서 생겨난 새로운 길이다.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나면 이를 대처하기 위해 법이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요즘 소설을 보면 법과 같다는 생각을 해요. 소설은 상황을 앞서서 상황을 선도해야 하는데 소설이 법처럼 그 뒤를 쫓아간다면 그 사회와 문화는 지체할 수밖에 없습니다. 독자들은 뭔가 새로운 것을 읽고 싶은데 책을 펴면 매년 그 얘기가 그 얘기에요. 게다가 한술 더 떠서 가르치려 들고 과시하려 드니 누가 소설책을 들겠습니까? 문창과 경쟁률이 15대 1이고 신춘문예에 400편이 응모한다는 것만 믿고 안주한다면, 또 이들을 받아서 기성작가의 구미에 맞는 클래식한 작품을 쓰게 한다면 더 이상 소설은 희망이 없습니다."

특히 이번 작품집을 엮으면서 뼈저리게 느낀 것이다. 쓸 때는 몰랐는데 막상 한꺼번에 놓고 보니 내용적인 부분에서 지체가 일어나고 있는 게 보였다. 평론가들에게 주목받기 위해 내 것을 버리고 쓴 작품도 있었다. 책을 묶는 과정에서 빠지는 했지만 자괴감이 들고 게을렀다는 생각이 절실했다.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문창과에서 9년이나 있다보니 등단하지 못한 선후배들의 작품을 자주 접할 수 있었죠. 개중에는 정말 천부적인 문장력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날카로운 직관과 감수성을 가진 사람도 있었어요. 그들에게 '미안' 하지 않으려면 더 열심히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덜 먹고 덜 누리더라도 소설만 쓸 생각입니다."

이씨는 지금까지 다른 작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아류가 되지 않기 위해 인물 창조에 공을 들였다면 앞으로 특이한 상황을 설정하고 평범한 인물들이 들어가서 인간의 다른 면을 보여주는 작품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SF도 그가 관심을 가지는 장르 중의 하나다. **추천**

취재 | 신동섭기자 · 사진 | 박신우기자



《최순덕 성령충만기》이기호 지음 | 문학과지성사 | 333쪽 | 값 10,000원